



4월의 고통, 먼 미래와 과거를 잇다

예술공간 오이 4·3 소재
‘프로젝트 이어도’ 초연
실화 토대로 상상력 입혀
판타지 장르로 그린 그날
“매년 4월에 4·3공연 계획”

제주4·3 70주년이 되던 해인 2018년 4·3을 다룬 창작극 ‘4통3반 북중사건’을 선보였던 예술공간 오이. 단원들은 이 무대를 계기로 매년 4월이 되면 4·3을 그려낸 공연을 올리리라 다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4월 공연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은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고 막이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5월에 시작되는 오이의 신작 ‘프로젝트 이어도’ (작·연출 전혁준, 기획 오상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조심스럽게 펼쳐지는 무대다. 마침 2020년은 제주 무대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열망으로 연극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술공간 오이’를 만든 지 10년이 되는 해다.

‘프로젝트 이어도’는 미래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고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 엄청난



예술공간 오이가 펼치는 제주4·3 소재 연극 ‘프로젝트 이어도’ 출연 배우들.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먼 미래의 세계가 극의 한 축이라면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에서 벌어진 발포 사건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집회를 탄압하려는 공권력의 투입이 반복되는 미래, 제주섬에서 발생한 학살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과거의 모습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보인다. 강영지, 현대영, 고승유, 김소여, 홍서해, 김경미, 김지은, 이상철이 출연한다.

오이는 ‘프로젝트 이어도’를 두고 ‘판타지’ 장르로 소개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의 기획 배경에 대해 “실화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더했다”며 “아직도 정명되지 못한 4·3의 아픔은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다. 이 작품이 4·3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연 일정은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와 7시 예술공간 오이(제주시 연북로 66, 예코파인 지하1층). 공연 시간 90분.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료는 1만3000원(예매 1만2000원). 문의 010-2689-3152. 전선희기자

화가의 육성으로 듣는 ‘그림의 탄생’

갤러리ED 개관 기념 초대전
강승희·채기선 작가와 만남
5월 22일과 29일 각각 진행

한라산과 바다. 제주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존재들이다. 두 작가는 공통적으로 한라산과 바다를 화폭에 붙잡았지만 그것들이 품고 있는 사연은 저마다 다르다. ‘새벽의 화가’인 강승희 작가, ‘한라산의 화가’인 채기선 작가다.

지난 4월 18일부터 한라일보 사옥 1층에 들어선 갤러리ED 개관 기념 ‘제주, 제주 너머’ 초대전에 참여하고 있는 두 작가가 전시장에서 관람객들과 만나 그 이야기를 나눈다. 갤러리ED가 이달 22일 오후 3시 강승희 작가, 이달 29일 오후 3시 채기선 작가와의 만남을 잇따라 펼친다.



강승희 작가

채기선 작가

이번 행사는 갤러리 문턱을 낮추고 관람객들이 두 작가가 펼쳐온 창작의 세계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기획됐다. 작가의 육성을 통해 새롭게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로 회당 20명을 모집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 작업 방식 등을 풀어낼 예정이다.

추계예술대 관화와 교수인 강승희 작가는 교요함 속에 서서히 깨어나

는 한라산과 바다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검은색’의 화면을 펼쳐놓고 있다. 새벽에 스민 여백을 수묵화의 질감이 느껴지는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다. 강승희 작가는 수십 년 관화에 매진해오다 지난해 서양화 작업으로 서울 노화랑 개인전을 가졌고 이번 갤러리ED 초대전 역시 서양화로 채워지고 있다.

채기선 작가는 마음 속 한라산을 붉은 빛이나 푸른 빛이 감도는 화면에 담아냈다. 채 작가는 20년 넘게 한라산을 중심으로 작업해 벌어들였고 북한강이 흐르는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는 지금도 눈감으면 떠오르는 한라산을 그리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마음의 풍경-한라산과 일출봉’ 초대전 등 그동안 20회 넘게 개인전을 이어왔다. 참가 신청 064)750-2530.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대 작가들이 띄우는 ‘나의 X에게’

김들·윤소희·허민경 3인
아날로그 소통 모색 전시

청년작가들이 손편지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만나도록 이끈다. 문화공간 새창라운(제주시 서사로 5길 15-1)에서 펼쳐지는 ‘나의 X에게’란 이름의 전시다.

20대인 김들, 윤소희, 허민경 3인이 제주문화예술재단 후원으로 마련

하는 이 전시는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좇으며 일상의 대부분을 디지털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봤다.

3인의 청년작가는 “디지털 세상을 통해 모든 것을 나누지만,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클릭 한방에 메일을 쏘는 디지털 관성을 벗어나 개인이 개인에게, 작가가 독자에게, 내가 X에게 서로를 생각하며 직접 손으로 진심어린 편지를 쓰는 아날로그 소통을 시도하려 한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7시에 열린다.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1~오후 6시(월요일 휴관). 관람객예전 선착순으로 전시와 연계한 체험 도구가 제공될 예정이다. 웹사이트(https://www.instagram.com/dmx.team) 참고. 전선희기자

예술공간 이아 청년 창작활동 거점으로

아트컬렉티브 이아로 사업
만 19세~39세 예술가 대상
상주형 창작활동비 지원

옛 제주대병원에 조성된 예술공간 이아가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0년 청년문화매개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장르와 콘텐츠의 경계를 아우르는 상주형 기획사업인 ‘제주청년 아트컬렉티브-이아로’를 펼친다.

제주도의 제주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이아를 기반으로 청년예술가들에게 직(재원)·간접(공간, 사람) 다년형 지원을 통해 안

정적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2020년 1차 연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익년도 실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예재단은 이 사업에 참여할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예술인이나 3인 이내로 구성된 창작그룹을 공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기획자 포함)나 제주 출신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올해 청년유망예술가육성지원사업, 청년예술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 등 관련 분야 선정자는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예술 일반 등 전 장르에 걸쳐 있다. 창작, 비평, 기획회의, 작품 분석, 워크숍, 연구조사, 작품 제작, 발표 등 예술창작과

정을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7월부터 6개월 동안 창작활동비로 개인 월 100만원, 창작그룹은 1인당 70만원이 지원되고 사업별 창작스튜디오 1개실, 공용 공간, 연습실 등이 제공된다. 문예재단이 보유한 체널을 이용해 이들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예술가들은 지역 연계 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네트워킹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지원서 접수는 지난 15일 시작돼 이달 2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실시된다. 개인 4명, 창작그룹 2팀 등 총 6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제주학센터 10주년 세미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달 20일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제주학연구센터 10년, 종합적 성장과 그 과제’ 정책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어, 제주 역사 편찬 등 사업 분야 담당 연구원들이 지난 10년 간 진행되어 온 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된 토론을 펼친다.

웹툰 작가에 창작지원금

제주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 소재 웹툰 콘텐츠 신규 제작을 희망하는 도내 웹툰작가를 모집해 창작지원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하는 제주웹툰캡퍼스 운영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2개월 동안 웹툰 창작에 대한 작가료를 지원한다. 기성작가는 최대 500만원, 예비작가는 최대 200만원 지원과 함께 웹툰작가와 1대 1 멘토링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은 5월 29일까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관음사 우수 템플스테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실시한 평가에서 ‘2019년도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에 선정됐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사찰별 운영 실적, 운영 인력, 참가자 만족도, 나눔 템플스테이 활동, 홍보 등 15개 항목을 평가해 A·B 등급을 받은 39곳을 우수 운영사찰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1곳을 비롯 서울 7곳, 경기 8곳, 경상 8곳, 강원 3곳, 전라 5곳, 충청 7곳이다.

축
CONGRATULATIONS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강 문 찬
부 : (故)강병준·모 : 김평숙)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영남대 로스쿨) 9기
(제주제일고등학교 48회)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교문화대학 9기
회 장 김 춘 재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 표창



고 민 철
(광림수산 대표)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정양식협의회
회 장 김 용 보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신창중학교 총동창회장



김 계 춘
여성수석부회장 제23회 변 영 순
대외협력부회장 제23회 김 수 병
운 영 이 사 제23회 강 창 윤

신창중학교 총동창회 제12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창중학교 제23회 동창회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장



고 정 화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도경우골프회
회 장 강 명 조 외 회원일동